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해외취업 연수과정운영기관으로 참여하면서 2년 연속(2017년, 2018년) 우수등급(A)을 획득했다.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미국 채용문 뚫었다 수료생 전원 '美 취업'

미국취업과정 수료생 대상 성과
해외취업연수 운영기관 A 획득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가 운영하는 미국 취업 과정 수료생 전원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건국대 글로벌캠퍼스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해외취업 연수과정(K-MOVE 스쿨) 운영기관으로 참여하면서 취업 성과에 따라 2년 연속(2017, 2018년) 우수등급(A)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 과정에 대한 평가는 올해 6월 이후 진행된다.

K-MOVE스쿨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졸업예정자를 선발해 직무교육과 어학교육, 해외체류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을 제공해 해외취업 인재를 양성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연수과정 종료 후 1년간 해외취업자에 대한 관리와 최종 성과 측정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월드잡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건국대 글로벌캠퍼스는 2017년부터 미국 취업 과정(과정명: 미국취업 경영

정보시스템 실무자 양성과정)을 개설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과 2018년 수료자 100%가 미국 취업에 성공했다. 대학은 이런 성과를 토대로 2019년에는 미국 취업 과정 외에 베트남 취업 과정(과정명: 베트남 제조업 특화 SCM 실무자 양성과정)으로 확대해 글로벌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수등급을 받음에 따라 건국대 글로벌캠퍼스는 2020년 해외취업 연수사업 미국 취업 과정 신청 시 우대되고, 향후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관련 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받는다.

건국대 글로벌캠퍼스는 해외취업 5단계 전략을 통해 해외취업자 양성에 나서고 있다. 1~3단계는 저학년(1~2학년) 학생 중심, 4~5단계는 고학년(3~4학년)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KU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자체 예산 약 1억 원을 활용해 예비 해외취업자를 육성하고, 해외인턴십과 K-MOVE스쿨 연계를 통해 해외취업자를 배출하고 있다. 항공권과 숙박비, 등 해외인턴십 체류비 전액은 학교가 부담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동국대 석림동문회

발전기금 3400만원 전달

동국대학교는 지난 9일 오후 동국대 석림동문회 회장 성우스님이 윤성이 총장에게 발전기금 34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1981년 동국대학교 승가학과를 졸업한 성우스님은 현재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과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 주지를 역임하고 있으며, 과거 발전기금 500만원과 종비생



동국대 석림동문회 회장 성우스님(오른쪽)이 지난 9일 오후 동국대 윤성이 총장에게 발전기금 3400만 원을 전달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기속사 해광원기금 1억 원을 기부한 바 있다.

김승현 국민대 교수 서울라이트 디자인마켓 매출 전액 기부

국민대학교는 의상디자인학과 김승현 교수가 최근 열린 DDP 서울라이트 디자인마켓에 참여해 '지속가능 패션'을 주제로 다양한 상품을 기획해 시민과 소통하고, 매출액 전액을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라이트는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동대문에서 선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축제이자 문화콘텐츠 사업이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보름간 마켓, 문화공연, 포럼, 워크숍, 전시 등 풍성한 행사를 선보였고, 올해 주최측 추산 약 100만명의 국내외 관광

객이 현장을 찾았다. 서울라이트마켓에는 동대문 상인과 소상공인, 대사관, 대학 교수, 학생 등 총 270여개 업체와 개인이 패션상품을 전시했다. 국민대 김승현 교수와 학생들은 자연을 손상시키거나 천연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한 패션을 창조하는 '지속가능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김 교수는 "방문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확인했고 주관단체인 서울디자인재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용수 기자

숙명여대, 여대 중 취업률 2년 연속 1위

(서울권)

취업률 64.4%... 약학대학 96.3%
예체능·사회과학·어문계열도 높아
'스노웨이' 등 취·창업프로그램 주효

숙명여자대학교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서울권 4년제 여자대학 중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명여대는 교육부가 지난 10일자로 대학알리미(대학정보공시)를 통해 공시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2018년12월31일 기준)에서 취업률 64.4%를 기록해 서울권 여대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학과별 취업률을 보면, 약학대학 96.3%, 앙트러프러너십집공 85.7%, 독일어·문화학과 81%, 공예과 80%, 글로벌서비스학부 80% 등으로 전통적인 약학계열 강세와 함께 일반적으로 취업이 어렵다는 어문계열 및 예체능계열, 사회과학계열 학과 등도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숙명여대는 취업률이 상승한 배경으로, 대학측이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와 취·창업 프로그램, 정부 사업 참여를 꼽았다. 숙명여대는 2015년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된 이후 3년 연속 우수대학 평가를 받았



숙명여대 VR 모의면접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다. 학기 중에는 다양한 취업프로그램과 모의시험 등 취업스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사회 각계에 진출한 현직 동문과 함께하는 취업대비반 특강 등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7년부터는 학생경력관리시스템 스노웨이(SNOWAY)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경력과 역량관리를 포털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로탐색과 취업대비가 가능토록 시스템화했다.

다양한 교과, 비교과활동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진로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내가 디자인하는 나의 수업' 자기주도 진로설계 프로젝트도 운영된다.

다양한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개인의 역량은 SNOWAY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기업에 지원시 활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정부사업에서도 성과평가 A등급을 놓치지 않고 있다. 또한 재학생 직무체험, 서울시정 인턴십, 산학협동교육, 기업실무 인턴십,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장단기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본역량은 물론 실무능력 또한 뛰어난 여성인재 육성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숙명여대 옥경영 경력개발처장은 "입학 초기 학생의 직무·적성을 진단하고,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원하는 사회진출 분야로의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진로·취업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국정화 폐지 3년 만에... 중·고교 새 역사교과서 도입

中 전근대사, 高 근현대사 위주

올해 1학기부터 중·고등학생들은 바뀐 역사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타 교과서는 2018년 도입됐으나, 역사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이후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을 손질해 2년 늦게 도입된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새 역사 교과서의 가장 큰 변화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경우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근대사 위주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개항기 이후 현재까지 근현대사 위주다. 실제로 중학교 역사교과서 6종은 전근대사가 80%, 근현대사가 20%로 구성됐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은 전근대가 27%, 근현대사 73%로 이뤄졌다.

기존 교과서는 중·고교 모두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비중이 각각 절반 정도 수준으로 학생들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고등학교에서 반복 학습하는 문



미래엔 출판사의 2015개정 교육과정 적용 중학교 역사 교과서, /미래엔

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학생들이 중학교 때는 전근대사 위주로 전반적인 역사 지식의 토대를 다지고, 고등학교 때는 근현대사 위주로 큰 틀을 다지는 정치·사회 변화상을 배우게 된다.

미래엔 출판사 교과서를 보면,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1~5단원이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내용이고 6단원만 근현대사를 짧게 다룬다. 반면 이 출판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1단원만 전근대사고 2~4단원은 근현대사를 다룬다.

교과서에 담긴 세부 학습요소의 양은 기존 교육과정 대비 20% 가량 축소됐다.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사가 학생들의 창의적인 학습을 끌어내도록 하기 위해서다.

과거 논란이 됐던 국가 정체성에 관한 내용은 기존 교과서보다 분명한 표현으로 기술됐다. 6.25전쟁은 북한의 남한 침략(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라는 점이 명확히 담겼다. 한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한은 '북한 정권 수립'으로 표현이 통일됐다.

민주주의 표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집필 기준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제시하면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중 집필진이 표현을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일제의 물자 수탈, 강제징용, 일본군 성노예제(위안부) 등 일제 침탈사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 왜곡은 분량과 내용의 폭이 확대됐다.

그동안 공교육에서 소홀히 다룬다는 지적이 많았던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내용은 대폭 늘었다.

검정체제인 이번 역사교과서는 학교가 여러 교과서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계에서는 단일 교과서나 선택 교과서나를 놓고 잡음도 일 것으로 보인다. /한용수 기자

산재노동자 자녀 고교생에 전액 장학금

근로복지공단 1인당 최대 500만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노동자의 고교생 자녀를 선발해 고등학교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선발 대상은 산재 사망노동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애등급 제1급이나 제7급인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로 올해 고등

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이다.

올해 고교2,3학년은 정부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 재학 중인 경우는 신청 가능하다.

올해 기존 장학생을 포함해 약 646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 학교를 통해 연간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입학금, 수

업료, 학교 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정기선발 이후 장애등급 결정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4월부터 장학생 수시 선발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장학생 선발신청서를 작성해 13일부터 2월14일까지 신청인 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수원·원주지사 재할지원팀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로 문의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용수 기자